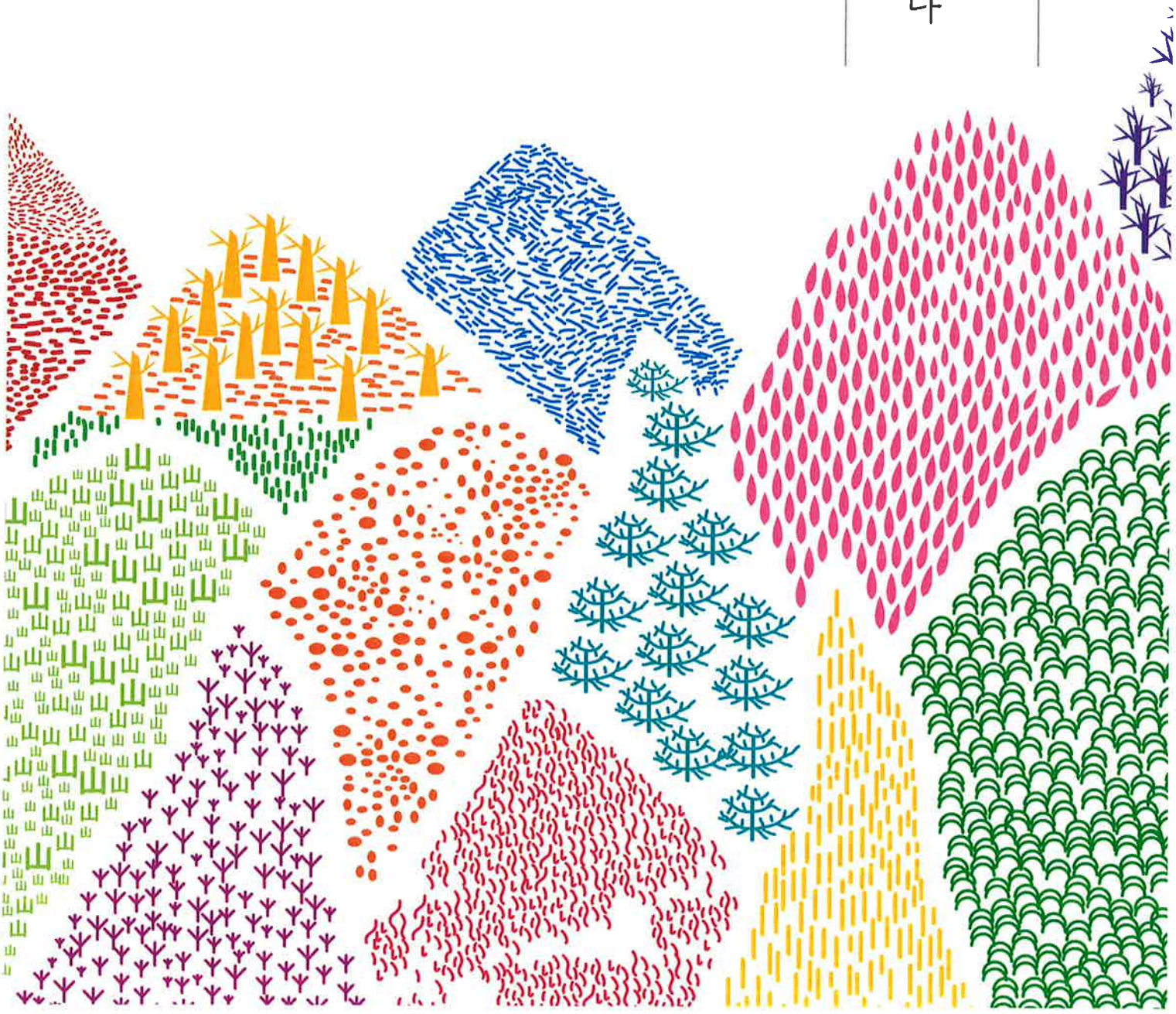
우리에겐 산이 있다



펴 내 는 글



안녕하십니까?
춘천시장 이재수입니다.

이 보고서는 「춘천사북 선도산림경영단지」의 10년간의 전략적인 산림경영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춘천만의 특색있는 사유림 경영 활성화 모델을 실천하여 소득이 되는 지역순환형 임업을 실현하고자 작성하였습니다.

우리시는 행정구역의 73%가 산림이며, 1읍 9개면 중 8개 면이 산촌마을로 전국의 타지방자치단체에 비해 풍부한 산림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민선7기'우리에게는 산이 있다'라는 시정철학과 함께 산을 활용한 산림산업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산림자원을 활용하여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구현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특히, 산림의 가능성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직면하게 되면서 진가를 더욱 발휘할 것이며, 미래 세대에게 열려있는 유망한 시장이 될 것입니다.

우리시는 「춘천사북 선도산림경영단지」를 성공시켜, 사유림의 경영 활성화 및 산주와 지역주민의 소득이 될 수 있도록 산림산업화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 보고서 작성을 위해 함께 해주신 춘천시 산림조합, 산주, 지역주민과 용역수행기관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본 사업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춘천시장 이 재 수

솔바우 사람들 이야기



부지런의 시작과 끝이 쌓여 만드는 힘

인터뷰 | 아오사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마을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이장을 맡은 지는 올해 24년째고 논 농사, 밭 농사를 1만평 짓고 있어요. 어렸을 적 부모님을 여의고 동생들을 키우면서 어린 시절의 배고픔을 느껴봤기 때문에 후세들에는 가난을 물려주고 싶지 않아 마을의 공동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통해 마을의 가치를 보존하고 다음 세대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하는 게 꿈이에요.





이장님의 하루가 궁금해요.

저는 정확히 새벽 2시 30분에 눈을 떠요. 사계절 똑같아요. 특별한 일 없으면 9시 전후로 잠에 들고요. 일어나서는 냉수 한 잔 마시고 관련 뉴스를 체크해요.

그리고 3시 전후로 도정공장에 도착하면 하루 일정표를 확인하고 기계를 돌리죠. 한창 바쁠 농번기에는 밭에 나가서 일 하고요. 어두우니까 랜턴 끼고. 아침식사는 늘 5시 30분에 해요. 6시 30분이 되면 논밭에 나가서 또 일하죠.

요즘은 코로나19 때문에 교육, 회의 같은 외부 행사가 없는데 보통 외부 볼 일 보러 나가기 전 이렇게 새벽에 세 네 시간 일하는 게 다른 사람 하루 종일 일 하는 것보다 더 많이 해요. 이건 평생 습관이라 자신 있게 말 할 수 있어요. 또 연로하신 마을 어르신들께 가끔 전화도 하고 오다가다 들러보고 그러죠.





마을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실 것 같아요. 마을 자랑 좀 해주세요.

마을의 가장 큰 공동사업으로 도정공장을 운영하고 있어요. 다른 마을 같은 경우는 거의 개인사업이 주 거든요. 저희처럼 마을 단위로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는 드물어요. 그만큼 공동체가 잘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자랑거리에요.





오래전부터 원주민들이 새농촌건설운동, 정보화 마을, 녹색농촌 지역 마을 같은 정부 공모 사업을 단계별로 뚤뚤 뭉쳐서 해왔기 때문에 공동사업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아는 거죠. 여러 공모사업이 학습의 효과도 있었고요. 2004년에는 신라호텔과 자매결연을 맺었었는데, 지속적으로 농산물을 거래하고 직원들이 마을에 와 농촌 체험 하면서 맺어진 돈독한 우애 덕분에 2011년 마을에 1억을 기부받기도 했답니다.

이장직을 20년 넘게 하셨으면 정말 많은 일을 겪으셨을 텐데요.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있나요?

많은 일이 있었죠. 그중에서도 첫 번째는 2000년도에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로 뽑힌 거예요. 강원도에서 10개 마을을 선정했는데 뽑혀서 5억을 받았어요. 이걸로 땅도 사고 각종 농기계도 공동으로 샀을 때가 보람 있었고요. 2010년 도정공장을 처음 지으려고 했을 때 90% 주민이 반대했었어요. 이 골짜기에 그 막대한 돈을 들여서 도정공장을 짓는다는 게 되겠는가 하는 의견이었죠. 대부분 망한다고 했지만 3년 만에 정상 궤도에 올려놓은 것이 두 번째에요. 2013년에는 강원도로부터 이 사업이 앞으로 핵심적으로 굴러가겠다는 종합 진단에서 최우수 평가를 받았어요. 무수히 많은 일 중에 가장 보람 있는 일이 이 두 가지예요.

외부인을 바라보는 시선은 어때요? 시골텃세라는 말도 있잖아요.

농촌이 보수적이잖아요. 왜 이 시골에 왔을까 색안경을 쓰고 볼 수는 있죠. 어딜 가나 그런 게 있어요. 그동안 많은 젊은 사람들이 거쳐 갔는데 귀농자가 성공하는 경우는 많이 못 봤어요. 정부 지원금 받고 몇 년 있다가 떠나기도 하고요. 저희는 귀농·귀촌자들이 마을에 정착할 수 있도록 마을의 수익구조를 처음부터 그분들과 같이 단계별로 개발해 나가면 주민의 일환으로 잘 적응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사업이 종료되는 10년 후, 마을의 모습은 어떻게 변할까요?

마을이 존속되려면 저희의 후세대, 젊은 층이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젊은 사람들을 유입하려면 수익창출거리를 찾아야 하고요. 그래서 이 사업을 통해 우리 임야에 여러 가지 사업을 해보고 이렇게 인구유입이 되서 마을에 정착하면 더 살기 좋은 마을이 되리라 믿어요.

올해부터 선도산림경영단지 조성사업이 시작됐다고 들었는데

우리 동네에는 마을 임야가 30만평 있는데 지금까지 산림에서 얻어지는 수익은 전혀 없었어요. 올해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산림에서 얻어지는 게 많다는 걸 깨달았어요. 앞으로는 이 사업을 통해 가능하면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개발을 하고 버섯이나 약초를 재배하면서 마을 공동 수익을 창출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어요. 주민들에게는 겨울에 집중적으로 알리고 홍보할 생각이에요. 그리고 내년부턴 함께해야죠.

마을에 오는 사람들이 어떻게 바라봤으면 하나요?

저희는 전형적인 농촌마을이에요. 펜션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식당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농사를 짓고 있는 마을이기 때문에 조금만 신경 쓰고 가꿔서 '아, 그 마을 깨끗하고 조용하고 살고 싶은 농촌 마을이다'라는 인식을 주고 싶네요.





인터뷰 2 **박세연**

솔바우 마을은 산에 픽 안겨있다.
마을회관을 지나 산 아래까지 한참을 들어가면
이곳 솔바우 마을에서 80여 년의 생을 일구고 있는 박세연 할아버님 댁이 나온다.
아섯 마리의 소를 키우던 외양간은 농기구를 보관하는 장고로 쓰이고 있었고
집 옆에는 3년 치의 땔감이 쌓여 있었다.



할아버님,
소개 좀 부탁드려요.

이 마을 토박이.
1941년생 박세연.
집사람이랑 벼농사, 감자, 배추, 들깨 등등
여러 가지 농사지으면서 살고 있어.

농사는
언제부터 지으셨어요?

한 열 댓살부터 지은 것 같아.
그때는 다 그랬어.

결혼은
언제 하셨어요?

55년 됐어. 이 사람은 오탄리에 살았는데 중매로 만났지. 그땐 다 중매로 결혼했어. 연애하는 사람 없었어. 집안 어른들이 결혼해라 하면 거역하는 사람도 없었어. 옛날엔 그랬어.

55년이나 같이 사셨으면
두 분은 잘 맞는 것 같은데요?

맞으나 안 맞으나
서로 맞춰가면서 산거지 뭐.



38선이 마을을
가로지는 것 같던데

38선이 요 앞 봉우리를 지나가. 바로 앞에 버스 종점 있잖아. 고 밑에가 38선이야. 내가 옛날에는 지금 도정공장 있는데 께에 살았어. 피난 갔다가 돌아와서 여기로 올라온 거지. 지금 이 집도 이북 땅이었다고.

그 때 마을 분위기는 어땠나요?

10살 때라 잘 기억은 안 나는데, 38선 밑으로 우리는 다 살았어도 위쪽으로는 사람이 안 살았어. 전쟁나기 전에도 사람이 안 살았다고. 이유야 모르지만 전쟁 준비를 한 건지 어쩐 건지 사람들을 못살게 했어.







한국전쟁 일어나던 날, 기억하세요?

피난을 경상도까지 갔었지, 걸어서. 어머니가 우리 삼형제 데리고 피난 갔었어. 아버지는 인민군한테 붙잡힐까봐 먼저 나가셨는데 어디서 만나기로 해놓고 못 만났어. 난리통에 어떻게 되셨는지... 피난 갔다 와서는 춘천 시내 외가댁에 한 2년 있었어. 근데 언제까지 얹혀살 순 없으니까 여기로 다시 들어왔지. 폭격 맞아 다 부서져서 집도 없었어. 그래도 고향이 뭔지 다시 들어와 사는 게 여태까지 사는 거야.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지내셨어요?

피난 갔다 들어와서는 다 풀밭이고 뭘 하려해도 호미밖에 없으니까 썰썰냈시 뭐. 시금은 빌, 보리가 하나도 없는데 그땐 빌, 보리만 심었는데도 잘 못 먹었어. 이밥(쌀밥) 먹는 사람이 없었어. 우리 딸도 이렇게 못 먹고 살았던 얘기 하면 "아유, 라면이라도 사다 끓여먹지 그랬어요." 하는데 라면이 어디 있나 그 시절에. 결혼하고 나서도 한참 후에 나왔는데. 그리고 토요일은 빨래하는 날이었어. 먹을 것도 없는데 옷도 한 벌이었지 뭐. 일주일 입고 토요일에 빨아서 널고 마르면 또 입고 그랬어. 지금은 애들 용돈 주면 만원도 적다 그러잖아. 그때는 돈들이 없어서 10원도 귀했어. 큰아들 국민학교 다닐 때, 돈 2천원을 꾸려고 이 마을 다 돌아도 없었어. 저 밑에 과일가게 갔더니 있어서 꿨지. 그렇게 돈이 귀했어.

동네 분들하고는 뭐하고 놀았는지 궁금해요.

집집마다 대가족이니까 일 없으면 친구 집에 놀러 갔지. 장난도 치고 싸우기도 하고 그렇게 밤새도록 놀았어. 모이면 짚세기(짚신) 삼아 신고 가마니 치고 새끼 꼬아서 멍석 만들고 그랬어. 그때 비닐이나 콘크리트 바닥이 있었겠어? 밀, 보리 같은 곡식을 널을 데가 없잖아. 그냥 흙에 널면 돌이랑 섞이니까. 일주일 내내 하면 멍석 하나가 나왔어. 여기 거실 바닥만 한 게. 지금은 놀러갈 데가 없어.



지금은 사라진 풍경이 보고 싶겠어요. 언제가 그리우세요?

옛날에 너무 못 먹고 살아서 지금이 좋아. 근데 부모님이 이렇게 좋은 세상도 살다 가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건 안타까워. 고생만 하다가 잘 사는 거 못보고 가신게 마음에 걸려. 용돈도 드리고 좋은 옷도 해드리고 했어야 했는데.

마을에 재밌는 장소가 있다고 하던데요?

여기 옆에 석봉산 올라가다 보면 베틀굴이 있어. 옛날엔 숨어서 베를 짰나봐. 직접 보진 못하고 얘기만 들은 거야. 베틀굴 위치를 정확히 아는 사람이 이젠 나밖에 없지. 어릴 때라 생각은 잘 안 나는데 기억에 옛날 할머니들은 그 산속에서 누에로 명주도 짜고 그랬다고.

평생을 살아온 송암리는 어떤 곳이에요?

우리 마을은 전국에서 알아주는 모범 마을이야. 단합이 잘 돼서인지 사업 선정도 잘 되고 상금도 꽤 탔어. 이런 게 혼자 잘해서 되는 건 아니니까. 또 마을에 불량한 사람이 없고 다 성실해. 내 동네라서가 아니고 진짜 그래. 춘천에서 서면 다음으로 배추나 감자 같은 농작물이 많이 나오는 것만 봐도 그래. 그래서 마을에 이것저것 일이 많은데, 점점 젊은 사람이 없어서 앞으로가 문제야. 웬만한 집들 보면 다 둘씩 살아. 셋이 사는 집이 없고 둘 아니면 혼자라고. 젊은 사람들이 오면 좋은데, 내 아들부터 안 들어오는데 뭐 어떡해. 이장님하고 반장님 그리고 나 이렇게 셋이 제일 젊어. 일 할 남자가 없어. 이장님이 그래, 내가 아프면 이제 농사지을 사람도 없다고. 오래오래 건강하라고.

인터뷰 3 **신영선**

새로운 길을 열어주고 싶어요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저는 1990년 산림조합에 입사해 철원군산림조합, 영월군산림조합을 거쳐 현재 춘천시산림조합에서 근무하고 있는 지도상무 신영선입니다. 전공이 산림 쪽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 분야에서 일하게 됐습니다.

산림조합이 뭐하는 곳인가요?

기본적으로 산주와 임업인을 대변한다고 보시면 되요. 산주들이 직접 목소리를 내거나 본인들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창구가 거의 없거든요. 우리나라 산림조합은 1962년도에 설립 됐어요. 산림조합중앙회가 있고 전국 각 지역에 140개 정도 지역 조합이 있어요. 주로 산주 분들이 산을 가지고 있지만 산림을 경영 할 수 있는 여건이 부족하다 보니 다방면으로 지원을 하고 있죠. 이외에도 정부 위탁 대행 사업, 숲 가꾸기 사업, 임업 자원 조성 등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송암리와 깊은 인연이 만들어졌다고 들었는데요.

네. 산림청에서 2013년부터 공모를 통해 선도산림경영단지를 추진 해 오고 있는데요. 저희도 2019년 사북면 송암리를 사업장소로 지원해 공모에 선정 되었고 올해 1년차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선도산림경영단지 부지는 약 700ha(헥타르)이고 사업은 10년 동안 펼쳐질 예정이에요. 춘천시는 지자체 차원의 행정적인 부분에서, 저희 산림조합은 전반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경영 주체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10년의 사업기간 중 첫 해를 보냈는데, 어떤 일들이 진행 됐나요?

올해 1년차에는 단지 내에 임도를 냈어요. 그리고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산주, 전문가, 춘천시, 산림조합이 다 같이 모여 논의하면서 기본계획을 수립했어요. 일반 사업에서는 10년이 긴 시간이지만 임업 분야에서는 짧아요. 저희는 보통 50년에서 100년을 내다봐요. 나무를 심고 그 나무가 커서 자르고 수익을 얻기까지, 경제림으로써 가치가 있을 때까지는 굉장히 긴 시간이 소요 되잖아요. 또 경관적인 가치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산에서 임목만 생산해 내진 않을 거고요. 휴양이나 체험도 경험할 수 있게 준비할 예정이고, 베틀굴이나 석봉 등 역사적 가치가 있는 부분을 연결해서 다양한 시도를 해보려고 해요.

선도산림경영단지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가요?

우리나라 사유림은 산림면적의 68%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렇기에 사유림을 빼놓고 산림 경영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죠. 국가가 가지고 있는 국유림이나 기관, 단체가 갖고 있는 공유림이 비교적 적기 때문에 우리나라 임업 정책에 핵심을 차지하는 부분이 사유림이에요. 하지만 산주들이 특별한 소득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보통 증중산이라 그냥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 보니 산림 경영에 대한 의욕이나 자본, 기술이 부족하고 방치된 사유림이 많아요. 물론 정부에서 연도별, 시기별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들여 경영해 오고 있지만 아직까지 뚜렷하게 우리나라 사유림 산림 경영에 대한 성공 모델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산림청에서 선도산림경영단지 조성사업을 대안으로 내세운 거죠. 이 사업을 통해 산주와 지역 주민의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만들고, 다양한 산림자원을 찾아내서 체계가 잡힐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사업의 출발점이 궁금해요.

춘천은 다른 도시에 비해 숲과 나무의 분포가 평균 이상으로 높아요. 산림 경영의 좋은 조건을 갖고 있음에도 체계적인 활용은 못하고 있죠. 이렇게 좋은 자원에 정부의 예산까지 더해지면 시너지 효과가 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침 선도산림경영단지 조성사업이 있었고 이왕이면 제도권 안에 들어가서 정부 사업의 기준과 목적에 부합하게 춘천이 가지고 있는 산림을 경영하다 보면 좋은 모델이 되겠다는 기대감으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많은 마을 중 왜 송암리가 선정 된 건가요?

춘천이 소나무 재선충병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어요. 북방수염하늘소라는 매개충이 나무 안에 들어가 나무를 죽이는 병이거든요. 소나무뿐만 아니라 잣나무까지도요. 춘천에 잣나무도 많기 때문에 대부분의 면 단위 지역에 병이 이미 분포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나마 사북면이나 북산면이 청정지역으로 남아있어요. 또 송암리는 마을 분들의 사업 노하우나 자본 축적이 다른 마을에 비해 월등히 좋아요. 마을 사업도 운영하고 있고요. 이외에 용화산 자연휴양림, 고성리 산촌생태마을, 춘천숲체험원 등이 근방에 위치해 있어 연계할 지점이 많아요. 그래서 송암리가 타당하지 않나 생각해요.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가장 중점에 둔 부분이 있나요?

성공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기본계획이에요. 어떤 단지는 단순하게 기존에 있던 자료로 기본계획을 세우기도 하는데 그러면 문제가 생기죠. 저희는 산주와 마을 주민과의 소통에 신경을 많이 썼고 상투적인 해결방안이 아닌 인문학적으로 해석하려고 노력했어요. 또 송암리가 관광 자원, 산림 탐방 쪽으로도 좋은 숲이어서 이런 부분을 지역사회와 연계해 개발하면 차별화 된 계획으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희 모두가 '산림 전문가'라는 자부심을 갖고 성공모델을 발굴해 확산시키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답니다.

선도산림경영단지가
어떤 분들에게
어떻게 비쳤으면 하나요?

산주들이 산을 경영 한다는 것에 대해서 아직 낯설어 하세요. 나무 심고, 심었으니까 키우고, 다 컸으니까 자르고, 일반사람들의 인식은 여기까지거든요. 그런데 선도산림경영단지에서는 나무는 나무대로 키우고, 한쪽에서는 단기 소득 임산물을 재배하면서 소득사업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외에 유실수나 약초도 재배하면서요. 정부 사업이기 때문에 그에 맞게 성과를 내고 비춰지는 모습도 중요하지만, 산주와 임업인들에게 수익모델을 만들어 드리고 산에서도 소득이 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드리고 싶어요. 행정에서 말하는 성공이 아닌, 그분들에게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해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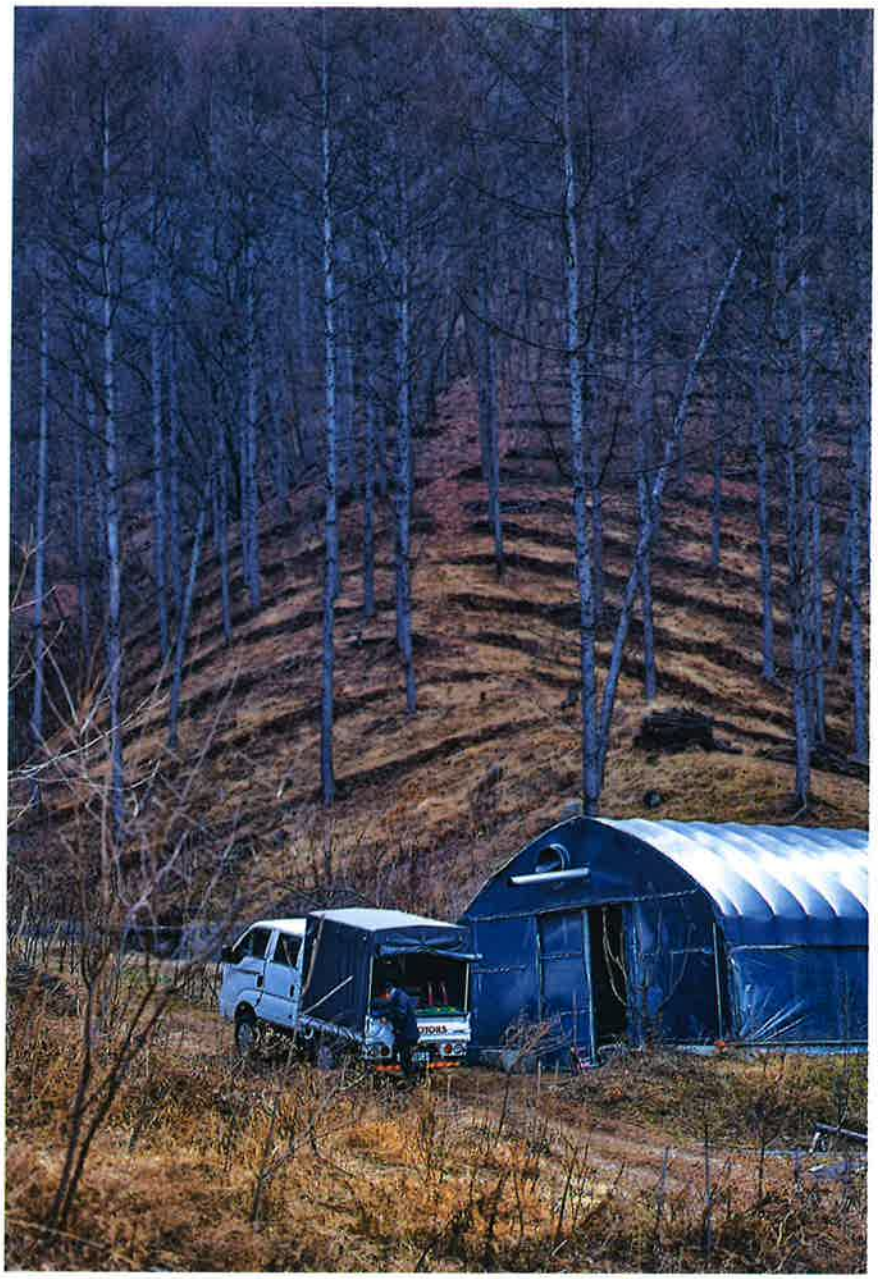
전 세계를 마비시킨 코로나19 뿐만 아니라 앞으로 어떤 것이 우리 사회를 위협하고 불편하게 만들지 모르잖아요. 전에는 미세먼지 때문에 애를 먹었고요. 미세먼지도 시내랑 산림 안에서의 농도차이가 확연하게 나요. 또 산은 필요에 따라 물을 머금기고 하고 흘려 내보내기도 하죠. 야생동물 서식지기도 하고요. 그렇기에 최후의 보루는 산림이라고 생각해요. 이상기후나 환경 보호에 대비하고 대안을 만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자원. 그래서 선도산림경영단지가 중요하고 그 초석을 다지고 있다는 것에 자부심을 갖고 일하고 있답니다.

개인적으로 바람이 있을까요?

제가 올해 31년째 근무입니다. 입사하기도 전인 1980년대부터 사유림을 활성화하려는 정부 정책들이 있어왔지만, 지금까지도 사유림 경영에 대한 답이 없어요. 여전히 찾는 중이죠. 그래서 선도산림경영단지를 통해 답을 찾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들이 정착 되서 산주와 임업인들이 소득을 얻고 희망을 가졌으면 해요. 정답이 아닐지라도 길을 열어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토굴을 이용해 사업을 확장해 보고 싶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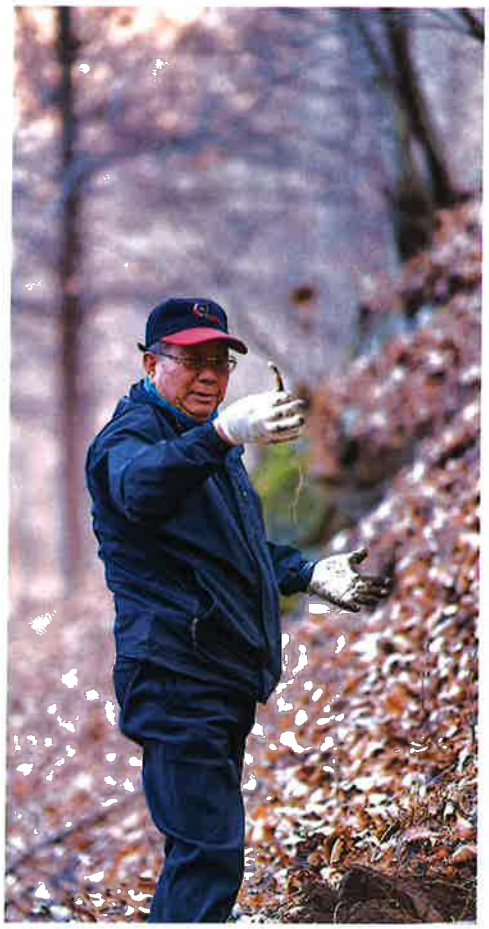


자기소개 부탁 드려요.

송암리에서 산채 농장 운영하고 있는 박용환 입니다. 20년 전에 이름 없이 시작 했다가 2009년부터 버들농원이라고 이름을 지어서 일하고 있어요. 산양삼부터 시작해서 산마늘, 두릅, 산도라지, 산더덕, 취나물까지 하고 있어요. 농원이 보통 4~6월에 바쁘고 여름에는 더워서 쉬고 또 9~11월 바빠요. 그래서 농장 일 보면서 산림조합에도 출근해 재선충병 방제작업도 하고 봄에는 나무도 심고 여름엔 풀 깎는 일도 하고 있답니다.

송암리에는 어떻게 들어오게 되셨어요?

1993년 즈음 시내버스 운전 일을 하다가 이 동네를 알게 됐어요. 그리고 알고 보니 마침 아내 쪽 종중땅이 있어서 기회가 닿은 거죠. 그렇게 조금씩, 조금씩 시작했어요. 처음엔 1천 평, 그 다음엔 1만 평으로 늘려갔고 지금은 13만평이랍니다. 형제가 8남매인데 운영을 같이 하고 있어요. 각자 지분을 가지고 있죠. 지분이 명확히 나뉘어져 있으니 싸움이 나지도 않아요. 오히려 서로 어떻게 하면 더 잘 할까를 이야기해요. 농원이 잘 되어야 모두가 잘 되니까요.







인터뷰 4 **박용환**

마을에 드나든 지 20년이 넘었으면 한가족 같으실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내 마을 같아요. 솔바우 마을은 체계가 아주 잘 되어 있어요. 이장님이 일을 워낙 잘해야 말이죠. 마을 분들 간에 소통이 잘 되고, 방앗간 운영도 잘 하잖아요. 마을을 잘 굴러가게 할 수 있는 사업도 많이 하고, 이것저것 활용을 잘 하는 것 같아요. 서로 즐겁게 지내면서 동네에 들어가면 잘 나가지 않으려고 하더라고요.

연평균 3억 원의 매출이 난다고 들었는데, 노하우가 있으신지요?

농사를 짓다 보니까 조금씩 알게 된 거지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산에서 삼을 키우는 게 참 골치 아파요. 산에 쥐가 많거든요. 예전엔 쥐가 파먹어서 없어지는 경우가 허다했어요. 쥐약을 놓기도 하고 이것저것 방법을 다 써봤어요. 그렇게 몇 년이 지나니까 삼의 생존율이 높아진 거죠. 클 수 있는 여건이 된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는 그냥 막 심었는데, 지금은 둔덕을 만들어서 계단처럼 해놓으면 낙엽이 이 안에 쌓여요. 낙엽이 썩으면서 부엽토가 생기고 미생물이 자라니까 이제는 아주 잘 자라고 있어요. 1~2년 해서 터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희 농원도 20년 넘게 하면서 이제 터득을 한 거죠.



20년 동안 어떤 게 가장 힘드셨어요?

삼을 심어놓으면 5년 동안 그냥 묻어두는 것도 있고 중간에 없어지는 것도 많아요. 수익이 나기까지 오래 걸리니까 그게 가장 힘들었죠. 그래서 산림조합 일을 많이 했어요. 그 덕분에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어요. 저희 같이 평범한 사람들은 큰돈이 없으니까 농사를 크게 지으려면 조합에서 돈을 빌려야 하는데 이런 다양한 지원을 해주거든요. 산 임대만 1년에 8백만 원 정도 돼요. 그래서 활용을 잘 해야 돼요. 시행착오를 참 많이 겪다가 제대로 된 수익이 난지는 이제 5년 정도 됐어요. 5년 전부터는 일 년에 한 번씩 여행도 갈 수 있게 됐죠.





올해부터 선도산림경영단지 사업이 진행 되는데, 농원을 운영하시는 입장에서 아이디어가 있으신지요?

저는 명이나물이나 취나물, 장아찌 같은 것을 토굴을 이용해 많이 보급해 보고 싶어요. 땅을 파고 굴을 만들어서 그 안에 나물을 넣어두면 발효가 다른데 보다 잘 될 것 같거든요. 자연 속에서 발효되는 거니까 냉장고보다 훨씬 좋을 거고요. 토굴을 꼭 해보고 싶어요. 사람들이 구경 오면 재밌어 할 것 같고 어디서도 못 보는 광경이니까 특별한 경험이 될 것 같아요. 저는 먹거리를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관심도 많지요. 단기간이 아닌 장기적으로 오래도록 보관하면서 운영해보고 싶어요. 아직 하고 있지는 않지만 앞으로 인터넷 판매도 해보고 싶어요.

앞으로 마을에 대한 바람이 있으신가요?

사북 송암리의 산도산림경영단지 사업이 잘 돼서, 외부사람들에게 홍보가 많이 됐으면 좋겠어요. 또 송암리는 쌀이 유명하지만 쌀뿐만 아니라 마을에서 나는 산채나물도 무공해라 누구에게나 좋아요. 이런 장점들이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어요.

솔바우하우스에서 사부작

소개 부탁 드려요.

춘천이 고향인 최지혜 라고 해요. 저는 한옥에 관심이 생겨서 30대 초반까지 문화재 현장을 돌다가 작은 한옥 짓기를 하고 싶어서 올해 초 마을에 들어와 살고 있어요. 옛 정미소였던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솔바우하우스'라는 복합문화공간을 운영하고 있어요.

마을과는 어떻게 인연이 생긴 건가요?

처음 오게 된 건 2014년 이었는데요. 부모님이 다 쓰러져 가는 작은 구옥을 사놓으신 게 있었어요. 제가 큰 문화재 현장을 다니긴 했지만 과거 시골마을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도 궁금해서 구옥을 해체해봤는데 너무 깨끗한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 농막으로 쓰시라고 다시 깔끔하게 세우게 됐죠. 그게 인연이 돼서 왔다 갔다 하다가, 버려진 창고를 봤고 고쳐서 쓰면 좋을 것 같아서 들어오게 됐어요.



들어 오셔서 어떤 일들을 하셨나요?

사실 올해는 주객이 전도 된 상황이에요. 원래 하고 싶었던 건 신랑이랑 둘이 한옥 수주를 받아서 작은 집 짓는 일이었는데, 본격적으로 하기에 앞서 코로나19가 터진 거죠. 그리고 솔바우하우스를 만들고 나니 의무감도 생겨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에 신경을 쓰게 된 거예요. 지금은 공간 운영이 주가 된 상황이에요. 프로그램 운영도 재밌긴 한데 저희는 집을 짓고 싶어요.

솔바우하우스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마을에 농촌 체험하러 오시는 분들이 밭에서 활동을 하더라도 쉬면서 차 한 잔 마실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공간이 되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카페문화가 널리 퍼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골에는 카페가 잘 없잖아요. 마을 분들한테는 그런 팬시(fancy)한 장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었고요. 프로그램은 오시는 분들에 맞춰 만들게 됐어요. 봄에 시작한 '춘천호 피크닉'은 트레킹이 포함된 체험 프로그램이에요. 시골에서 놀고 싶은 분들, 자연에서 쉬고 싶은 분들이 주로 오셨었어요. 반응이 좋아서 계속 하고 싶은데 춘천에도 확진자가 늘면서 못하고 있어요. 다른 프로그램들도 기획하고 못 한 게 많아요. 그래서 하반기에는 소규모 모임을 위한 대관을 주로 했었어요. 저희가 여기서 하려는 것들은 위드 코로나 시대에 잘 맞는 것들이에요. 숲과 야외에서 활동하고 소규모로 진행되고. 보통 많아야 8명이 오니까요.





인터뷰 5 최지혜





피크닉에 참여하셨던 분들의 반응은 어땠어요?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교육하는 홈스쿨링 가족이 오셨었어요. 그분들이 그동안 참여했던 대부분의 프로그램은 시간별 스케줄이 딱 정해져 있었대요. 그런데 저희는 활동은 정해져 있지만 시간대로 정확히 움직여야 하는 걸 강요하진 않거든요. 참여자의 속도나 컨디션에 맞추자는 의도로 기획한 거라 실제로 걷는 게 힘드신 분들은 중간에 쉬러 가기도 하고 운전하고 와서 힘드셨던 분은 피곤해서 한잠 자기도 했어요. 이런 자율성이 좋았다고 얘기 해주셨어요.

지금은 추워서 야외활동이 힘들 텐데, 어떤 일에 집중하고 있나요?

강원문화재단 지원사업을 받아서 '숲레시피'라는 활동을 하고 있어요. 지인을 통해서 조경하시는 분, 디자인 하시는 분, 카페 하시는 분, 술 만드시는 분, 음악치료 하시는 분들을 모았어요. 다 숲하고 연계가 되더라고요. '숲을 주제로 우리 재밌게 놀자'가 시작이었고, 숲에서 재밌게 노는 걸 다른 사람에게도 알려주자는 마음에 겨울에 어울리는 리스(wreath, 화환) 키트를 만들었어요. 마을의 산림 부산물을 이용해 조각들을 모았고 신청하신 분들에게는 한 세트씩 집으로 보내드려서, 나뭇가지나 풀을 직접 손으로 만져보고 냄새도 맡아보면서 숲을 느낄 수가 있어요.







선도산림경영단지 사업에는 어떻게 참여하고 있나요?

아직 정해진 건 없지만 저희는 마을 주민인데다가 직업이 목수이다 보니, 참여할 수 있는 영역이 넓을 것 같은데요. 일단 선도산림경영단지 사업이 마을 분들에게는 조금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쉽게 알릴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다가 마을 산에서 나오는 부산물로 명패나 안내판을 만들고 있어요. 이걸로 '아, 산에서 뭘 하고 있구나' 생각하실 수 있게요. 또 마을 작은 소식지도 만들었어요. 앞으로도 쭉 발행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저희는 마을에 빚을 졌어요. 깨끗하게 가꿔놓은 마을에 이제 들어온 거니까요. 마을 분들한테 도움도 드리고 저희도 마을을 같이 공유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마을에서 하고 싶은 것들이 많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마을에 오면 잘 놀 수 있도록 곳곳에 재밌는 요소들이 있으면 좋겠어요. 잠을 잘 수 있는 곳도 있고 맛있는 걸 먹을 수 있는 곳도 있어서 마을 전체에서 시골 생활을 즐기다 갈 수 있는 마을 리조트 같은 느낌으로요. 운영주체는 각 주민 분들이 되고 여기 솔바우하우스가 로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저희는 집 지을 때 소나무만 썼었어요. 그 소나무도 대부분 영동지역이나 경북에서 올라오는 소나무였고 큰 소나무 같은 경우 수입재가 더 저렴해서 이걸 쓰는 데가 많고요. 우리 마을에는 소나무도 있지만 활엽수가 더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활엽수를 이용해서 집 짓는 것도 연구해 보려고 해요. 재밌는 실험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선도산림경영단지 사업이 끝나는 10년후, 마을의 모습이 어땠으면 하나요?

올해 닦아놓은 임도에 가봤어요. 생각보다 넓어서 차가 쉽게 다닐 수 있겠더라고요. 이곳에 전기차나 수소차들이 왔다 갔다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몸이 건강한 사람만 산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몸이 불편하신 분이나 어르신도 편하게 산을 즐길 수 있는 마을이 됐으면 좋겠어요. 또 먹거리가 어떻게 나는지 직접 보고, 먹어보고, 사갈 수 있으면 좋겠고 신선한 먹거리를 바로 요리해 먹을 수 있는 레스토랑도 있으면 좋겠어요. 식당이 있어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숙박지도 생기니까요. 시골에 할머니집이 있는 사람은 시골정서를 접할 수 있지만 그러지 않은 사람도 많잖아요. 편안하고 재밌는 할머니집 같은 마을을 만들어 나가고 싶어요.



춘천시

City of ChunCheon